

# 이정민 vs 김하늘 채리티 오픈 대결 '주목'

### 李, 디펜딩 챔피언 방어...金, 우승 도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5월의 마지막 대회인 'E1 채리티 오픈(총상금 6억원·우승상금 1억2000만원)'이 내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이천 휘닉스 스포링스 컨트리클럽(파72·6456야드)에서 막이 오른다.

올해로 4회째인 이 대회는 지난해 우승자 이정민(24·비씨카드)과 8개월 만에 국내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스마일퀸' 김하늘(28·하이트진로)의 대결이 관심이다.

올 시즌 처음으로 열린 정규 대회인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6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시즌 1승을 기록중인 이정민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타이틀 방어를 위해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각오다.

이정민은 "지난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마음가짐이 같다. 대회 타이틀을 꼭 지켜내고 싶으며 '2주 전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감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회가 열리는 휘닉스 스포링스의 그린은 정말 까다롭다. 그린의 굴곡이 심한 편이라 아이언 샷이 중요하다"며 "아이언 샷은 자신있지만 최근 샷이 흐트러진 느낌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샷을 다듬는데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다"고 자

신감을 드러냈다.

이정민에게 대적할 상대로는 2011년도 KLPGA 대상을 수상하고 2011·2012시즌 상금왕을 기록하며 KLPGA 투어 흥행에 앞장섰던 김하늘이다.

최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국내 대회 출전은 약 8개월 만이다.

오랜만에 돌아온 김하늘은 이번 대회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하늘은 "오랜만에 국내 투어에서 팬들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제작권과 작년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치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그린이 많이 까다로운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컨드 샷 공략이 중요하다. 아이언 샷을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곳에 볼을 보내기 위해 티샷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전략을 밝혔다.

지난 주 2016 부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박성현(28·넵스)에게 밀려 아쉽게 2위를 기록한 김지현(25·한화)도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 초대 우승자인 김보경(30·요진건설)과 두 번째 대회 우승자인 허윤경(26·SBI저축은행) 역시 다시 한 번 타이



이정민(24·비씨카드)



김하늘(28·하이트진로)

틀을 가져오기 위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박성현과 더불어 올 시즌 유이하게 다승을 기록 중인 장수연(22·롯데)도 세 번째 우승을 노린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올해도 소외된 계층을

위해 기금을 마련 총상금의 10%인 6000만원과 함께 주최사가 6000만원을 보태 총 1억2000만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후원 및 골프 유망주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우석대 태권도특성화사업단 교육부 행사 초청 공연

우석대학교 태권도특성화사업단이 교육부가 주최한 2016 창업유망주 300 출정식 행사에 초청돼 화려한 태권극을 선보이고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많은 교육계 관계자들과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들과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우석대 태권도특성화 사업단은 THE 태권포스 '에이지 오브 태극' 등 이미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려한 공연을 보였다.

최상진 태권도특성화사업단장은 "창업을 통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또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통해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민근기자



전북장애인체육회·복지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협회와 도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와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25일 도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과 전북도장애인복지관협회 전용주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관의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 희망자 발굴 활동과 종목을 연계한 도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인구 증대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기자

# 오클라호마 파이널 1승 남았다

### 웨스트브룩 트리플더블 달성 118-94로 골든스테이트 눌러

오클라호마시티 썬더가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 진출에 1승만을 남겼다.

오클라호마시티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체스피크 에너지 아레나에서 벌어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2015~2016 NBA 플레이오프 서부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4차전에서 118-94로 대승을 거뒀다.

3, 4차전을 내리 이긴 오클라호마시티는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앞서면서 파이널 진출에 1승만을 남겼다. 오클라호마시티는 2011~2012시즌 이후 4년만에 파이널 진출을 노리고 있다.

러셀 웨스트브룩은 36점을 몰아치고 리버넬과 어시스트를 각각 11개씩 해내 '트리플더블'을 달성했다. 웨스트브룩이 플레이오프에서 트리플더블을 달성한 것은 개인 통산 처음이다.

케빈 듀란트가 26득점 11리바운드로 활약하며 웨스트브룩과 함께 오클라호마시티 승리를 이끌었다.

안드레 로버슨(17득점 12리바운드)과 서지 이바카(17득점 7리바운드)도 제 몫을 했다.

올 시즌 역대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승(73승) 기록을 다시 쓴 골든스테이트는 오클라호마시티에 발목이 잡혀 탈락 위기에 놓였다.

만장일치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쥔 스테판 커리가 19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클레이 톰슨이 26득점 5리바운드로 분전했으나 팀 패배에 빛이 비쳤다.

골든스테이트가 3쿼터에 폭발한 톰슨을 앞세워 80-74로 쏘쳤던 오클라호마시티는 디온 웨이터스의 3점포와 웨스트브룩, 듀란트의 2점슛으로 다시 93-82로 달아났다.

듀란트, 로버슨의 3점포로 기본종계 4쿼터를 시작한 오클라호마시티는 4쿼터 중반 로버슨의 덩크슛과 이바카의 골밑슛으로 20점차(109-89) 리드를 잡으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한편 오클라호마시티와 골든스테이트의 5차전은 27일 골든스테이트의 홈구장에서 벌어진다.

/김민근기자



오클라호마시티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체스피크 에너지 아레나에서 벌어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2015~2016 NBA 플레이오프 서부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4차전에서 118-94로 대승을 거뒀다.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